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흘날리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흘날리다

흘날리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흘날리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흘어져 날리다. 또는 그렇게 하다.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흘날리다	-	-	-	-
흘날니-	-	-	-	-
흘날리다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흘어져 날리다. 또는 그렇게 하다.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흘날리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흘어져 날리다. 또는 그렇게 하다.

☞ 흘날리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흘날리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훗날리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흘날리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훗날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훗날니- 문헌 수록 표기	—	—	—	—	●→	●→
흘날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훗날리다

18세기

- 흘날리다

20세기현재

- 홏눌니-

19세기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홏눌리-, 홏눌니-, 흘날리-

↳ 흘날리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흘날리다’의 옛말인 ‘홏눌리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홏눌리-’는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흘-’과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도록 의미하는 동사 ‘날-’의 옛말인 ‘눌-’에 피동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흘-’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눌-’과 결합하면서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홏-’이 되어 ‘홏눌리-’로 나타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홏눌니-’는 ‘르르’을 ‘르니’으로 적던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형태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20세기에 ‘흘날리-’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흘날리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훗놀리-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훗놀리-

📖 출처 1728 청구영언 진본 41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곳이 진다 호고 새들아 슬허 마라 부람에 훗놀리니 곳의 탓 아니로다.

📖 현대어 풀이

곳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퍼 마라 바람에 훗날리니 곳의 탓 아니로다.

19세기 훗놀니-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훗놀니-

📖 출처 19세기 삼설기 1:15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황충은 나히 칠십의 삼석궁을 다리고 빅보천양호는 지죄 신출귀몰호고 천니마를 능히 타며
정군산 싸움의 빅슈를 훗놀니고.

📖 현대어 풀이

황충은 나이 칠십에 삼석궁을 데리고 백보천양하는 재주가 신출귀몰하고 천리마를 능히 타며 정군산 싸움에 백수를
훗날리고.

20세기 훗놀니-, 훗날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훗놀니-, 훗날리-

출처 1913 약산동대 118

용례 03

66 문헌 용례

양류楊柳는 청청靑靑하야 바람을 못 의기여 류소柳絮를 훑놀닌다.

㉮ 현대어 풀이

양류는 청청하여 바람을 못 이기여 유소를 훑날린다.

출처 1933 동아일보 12월 1일 2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눈 소식이 그리 놀랄 것은 아니나 예년에 보기 어렵든 더운 일기에 훑날리는 눈발이 이상하게
도 보인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9 동아일보 3월19일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함박눈이 훑날리고 문풍지가 치워 올던 겨울도 어느듯 물러가고 말었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훑날리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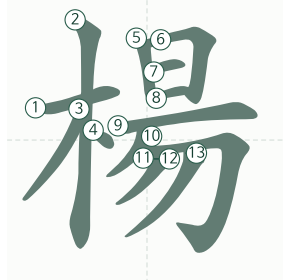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흘날리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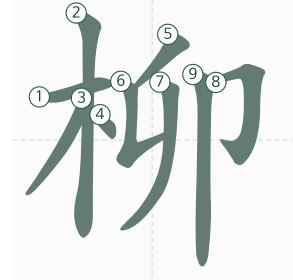
뜻·음 버들 양
총 13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楊/

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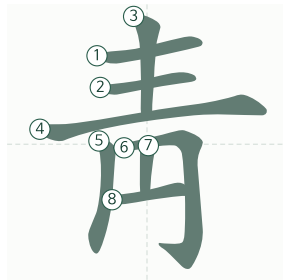
뜻·음 버들 류
총 9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柳/

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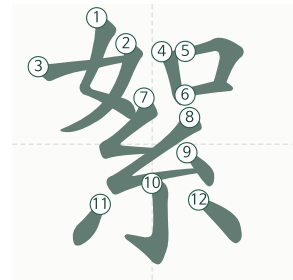
뜻·음 푸를 청
총 8획 · 부수 靑



hanja.wordrow.kr/한자/靑/

絮

뜻·음 솜서 / 성여
총 12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絮/